

2021년 6월 1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출진흥과 과장 김재형(044-201-2171), 사무관 조용형(2179)/ 제공일: 6월 17일(총 5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신북방 수출 역대 최고, 농식품 시장개척 결실 맺어

- '21.5월 누계 수출액 129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44.3% 증가 -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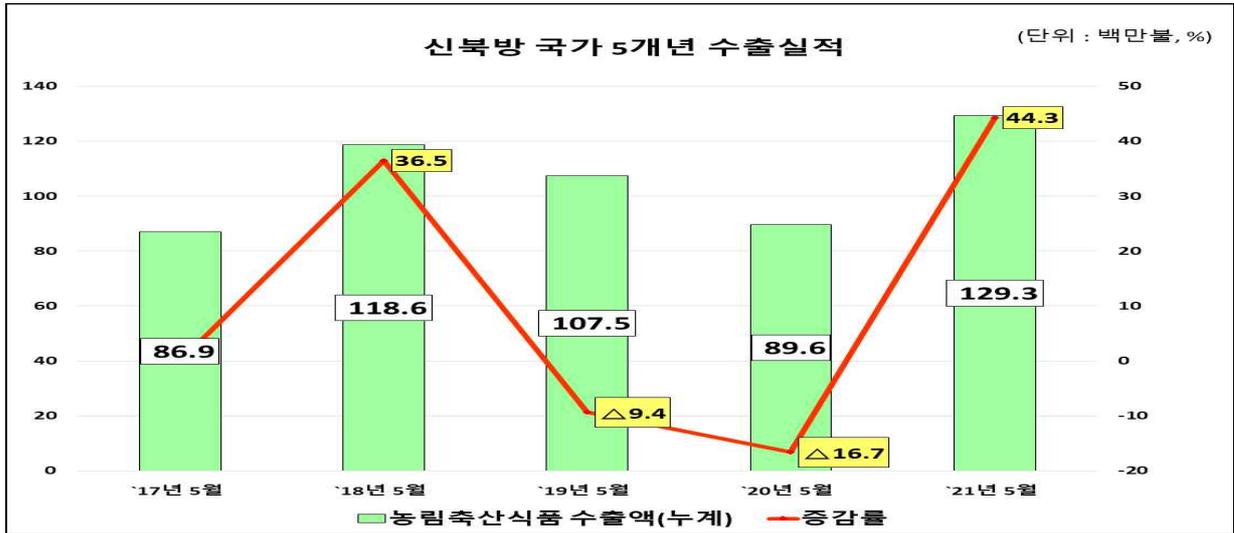
- ◆ '21.5월 누계 신북방 국가\* 농식품 수출액은 129.3백만불로 전년동기(89.6) 대비 44.3% 증가,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며 역대 최고 기록
  - 최근 5년간 수출액(증감률) : ('17.5월) 86.9백만불 → ('18.5) 118.6(36.5% ↑) → ('19.5) 107.5(△9.4%) → ('20.5) 89.6(△16.7%) → ('21.5) 129.3(44.3% ↑)
  - \* 신북방 국가(13개국) : 러시아·카자흐스탄·우크라이나 등 CIS 11개국 + 몽골, 조지아
  - 부류별로는 신선(9.9백만불, 34.3% ↑)·가공식품(119.4, 45.2% ↑) 모두 역대 최고 수출, 국가별로는 러시아(84.6백만불, 53.2% ↑), 몽골(30.8, 47.7% ↑), 우즈베키스탄(2.9, 28.5%) 등이 큰 폭으로 증가
- ◆ (시장개척 주요내용) 러시아·몽골·카자흐스탄을 시장개척 전략 국가로 지정, 사무소 개설 및 시장개척 요원 파견, 시장개척 참여 선도기업 육성, 코로나19 대응 온라인·비대면 마케팅 등 집중 지원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2021.5월 누계기준 신북방 국가\* 농식품 수출이 129.3백만불로 전년동기(89.6) 대비 44.3% 증가하였다고 밝혔다.

\* 신북방 국가 : 러시아·카자흐스탄·우크라이나·우즈베키스탄·키르기스스탄 등 CIS(독립국가연합) 11개국과 몽골, 조지아 등 13개국

- 이는 5월 누계기준으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성과이며, 2018년 이후 감소세에 있던 신북방 지역 수출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.

\* 최근 5년간 수출실적 : ('17.5월) 86.9백만불 → ('18) 118.6(36.5%↑) → ('19) 107.5(△9.4%) → ('20) 89.6(△16.7%) → ('21.5월) 129.3(44.3%↑)



- 수출실적을 부류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이 9.9백만불로 34.3%, 가공식품이 119.4백만불로 45.2% 증가하였다.

- 주요 증가 품목으로는 과실류(5,619천불, 69.5%↑), 인삼류(528, 129.7%), 버섯류(136, 48.1%) 등의 신선 농산물과 음료(12,322, 92.7%), 면류(11,673, 59.7%), 과자류(7,816, 50.5%) 등의 가공식품이다.

\* 감귤(393천불, 2,274.2%↑), 느타리버섯(130, 189.9%↑), 라면(9,975, 55.6%↑), 비스킷(2,970, 26.6%↑), 쌀가공식품(941, 222.6%↑)

- 국가별로는 러시아(84,561천불, 53.2%↑), 몽골(30,759, 47.7%), 우즈베키스탄(2,868, 28.5%), 키르기스스탄(842, 39.8%)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, 신북방 지역 13개국 중 러시아와 몽골 2개국의 수출 비중이 89.2%를 차지하고 있다.

□ 한편,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 선도 기업과 함께 다음과 같이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.

### ① 시장개척 전략 국가 지정 및 시장개척 요원 파견

○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을 위해 시장성, 소득 및 한류 수준 등 진출 여건, 수출업체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러시아, 몽골, 카자흐스탄 3개국을 전략 국가로 지정하고 시장개척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.

- 2019.7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농식품 수출 전문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 지사를 설치하고, 몽골, 러시아(모스크바), 카자흐스탄에 시장개척 요원(aT직원·청년해외개척단)을 파견\*하였다.

\* 파견 현황 : ('19) 2개국 19명 → ('20) 3 / 33 → ('21) 3 / 30

- 특히, 청년 해외개척단은 러시아어, 몽골어 등 현지어에 능통한 대학생을 선발하여 중소수출업체와 1:1 매칭하여 현지 시장조사, 신규 바이어 발굴, 제품 통관지원, 유망품목 홍보·마케팅 등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.

\* '20~'21년도는 코로나19로 국내 중소식품수출업체에 파견하여 활동

### ②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 선도수출업체 육성

○ 시장개척의 핵심 주체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북방 국가에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선정하고, 이들 품목을 생산·수출하는 중소식품업체를 선발하여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.

- 2021년까지 52개사를 선정하여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시장 조사 및 시범매장(안테나숍) 운영, 수출상담회, 식품박람회 참가, 온·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.

\* 지원 업체수 : ('19) 2개국 13개 업체 → ('20) 4 / 23 → ('21) 4 / 16

### ③ 온라인·비대면 마케팅 확대

-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마케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온라인몰, 배달앱, TV홈쇼핑 등 신유통채널 연계 홍보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다.
  - 러시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오존(Ozon)에 한국식품 상시 판매장 구축, 카자흐스탄 글로보(Glovo), 몽골 톡톡(Toktok) 등 배달앱을 활용한 홍보 판촉,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체험 후기 전파 등 온라인·비대면 마케팅 확대를 한국 농식품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신남방 지역에 이어 신북방 국가의 수출 증가로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의 중요성이 확인된 것으로,
- 신북방 지역이 주력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,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.

**참고**

**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실적**

□ 주요 품목별

(단위 : 톤, 천불, %)

구분	2020.1.1.~5.31(A)		2021.1.1.~5.31(B)		증감률(B/A)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□ 농림축산식품*	42,496	89,594	57,977	129,281	36.4	44.3
○ 신선 농산물	4,830	7,367	6,326	9,896	31.0	34.3
채 소 종 자	3	1,432	5	1,394	35.1	△2.6
인 삼 류	158	230	123	528	△22.1	129.7
감 꺾	18	17	444	393	2,411.1	2,274.2
느 타 리 버 섯	2	45	10	130	339.7	189.9
○ 가공식품	37,667	82,228	51,650	119,385	37.1	45.2
커피 조 제 품	7,521	12,715	9,579	17,785	27.5	39.9
음 료	8,415	6,393	15,807	12,322	87.8	92.7
라 면	1,637	6,410	2,422	9,975	47.9	55.6
장 류	1,495	1,727	2,002	2,582	33.9	49.5
쌀 가 공 식 품	143	292	261	941	82.7	222.6

\* 신북방 지역 13개국 전체 농식품 수출액

□ 주요 국가별

(단위 : 톤, 천불, %)

구분	2020.1.1.~5.31(A)		2021.1.1.~5.31(B)		증감률(B/A)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전 체*	42,496	89,594	57,977	129,281	36.4	44.3
러 시 아	30,448	55,186	40,119	84,561	31.8	53.2
몽 골	7,439	20,823	12,666	30,759	70.3	47.7
카자흐스탄	2,491	7,664	2,665	7,873	7.0	2.7
우즈베키스탄	949	2,231	1,078	2,868	13.6	28.5

\* 신북방 지역 13개국 전체 농식품 수출액